

2023학년도 2학기  
클라시쿠스 기말보고서

## 정세랑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2020)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생태주의

과 목 명 : 해(解): 기호와 사유  
담당교수: 정경훈 교수님  
제 출 일 : 2023.12.21.  
학 과 : 국어국문학과  
학 번 : 201921669  
이 름 : 황수정

## 정세랑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2020)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생태주의

황수정

### <목 차>

1. 서론
  2. 파괴적 인간과 문명으로 건설된 디스토피아
  3. 포스트휴먼 시대, 생태 유토피아를 향한 가능성
  4. 결론
- ※ 참고문헌

### 1. 서론

오늘날 인류는 생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태계 파괴로 기후 위기를 체감하며, 곳곳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학계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기후와 생태 문제로 이어졌다. 그중 인문학계에서는 ‘인류세(人類世)’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류세란, 인간의 힘에 의해 지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sup>1)</sup>으로, 지질학적 힘을 지닌 현 인류의 세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폴 크루첸(Paul Crutzen)으로부터 촉발된 이 논의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하며,<sup>2)</sup> 우리 사회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문학계에서도 생태주의 작품들이 주목받으며 하나의 커다란 장을 형성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1970~90년대 산업화 시대의 생태주의 작품과 달리, SF에 생태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방식의 작품이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는 중이다. 생태주의적 SF 소설은 인류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탈인간 ‘포스트휴먼(Post-human)’<sup>3)</sup>이 도래한 미래 사회 속에서 인간 및 비인간과의 결합을 그려낸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휴먼 생태주의’라고 일컫기도 한다. 포스트휴먼 생태주의는 사이보그와 인공지능, 동식물과 바이러스 등 생태계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으로의 회귀만을 낭만화하는 단순한 ‘에코토피아(Ecotopia)’와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지나친 인간중심주의와 인류세에 대한 경고로서 생태 윤리를 제시하기도 한다.<sup>4)</sup> 대표 작가로는 김초엽, 천선란, 정세랑 등이 있다. 김초엽과 천선란의 경우 한국의 대표적인 SF 작가로서 여러 번 연구된 바가 있지

만, 정세랑은 여성주의적인 면모가 강해 페미니즘적으로 연구된 경우가 많을 뿐, SF 분야에서 단독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 장르를 넘나드는 정세랑의 SF 소설은 다른 작가들과 묶여서 논의될 뿐, 개별적으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세랑 역시 오늘날 우리가 간과한 생태 윤리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대에 주목해야 할 작가임이 분명하며, 단독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세랑의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생태주의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정세랑의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에는 과학이 발전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 8편의 단편작이 수록되어 있다. 각 작품의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고의 주제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드릴게요」, 「모조 지구 혁명기」, 「7교시」, 「리셋」의 총 네 작품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각 작품에는 현 인류의 욕심과 과도한 문명 개발로 인해 망가져 가는 지구 혹은 세상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 인류가 건설해 낸 디스토피아(Dystopia)를 프로이트의 문명과 타나토스(파괴 충동)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설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시도의 공간도 등장한다. 정세랑이 유토피아(Utopia)로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생태계에 관여하는 모든 종, 예컨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인 AI 및 자연이 공생하는 공간이다. 이는 프로이트의 에로스(삶 충동) 개념과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파괴적 인간과 문명으로 건설된 디스토피아

정세랑은 네 작품의 배경 모두를 디스토피아로 표현했다.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뜻한다면,<sup>5)</sup> 디스토피아는 인류가 현재로부터 예견해 볼 수 있는 최악의 미래 상황을 의미한다. 디스토피아 문학은 현대인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표현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나아갈 미래 사회를 묘사한다. 폭넓게는 이상주의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불행한 미래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sup>6)</sup>

정세랑 소설에서는 21세기 현 인류의 이기심과 문명의 파괴적 특성으로 인해 디스토피아가 건설되고 말았다. 먼저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사회에 해가 되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모아놓은 수용소 안의 이야기로, 소설의 배경인 수용소 자체가 디스토피아에 해당한다. 수용소의 소장은 ‘승균’이 타인의 폭력적 인자를 깨우는 목소리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를 사회의 악으로 치부하고, 수용소로 끌고 와 성대 제거 수술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에서 계속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승균’과 함께 생활하는 ‘하민’, ‘경모’, ‘수현’, ‘연선’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 모두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었다. 저항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일종의 감옥에서, 이들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누리며 점차 적응해 간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문명이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명은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의는 모든 사람이 그 제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은 인간은 문명의 특정한 형태나 요구에 저항한다.<sup>7)</sup> 그 때문에 소설 속의 ‘승균’과 ‘연선’은 처음에 문명 공동체, 즉, 정부가 만들어낸 수용소의 요구에 반항한다. 그들이 반항했던 이유는 소수인 자신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침해받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억압으로 이들은 결국 문명의 요구를 수용하며 살아가기에 이른다.

이렇듯 수용소는, 문명이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디스토피아에 해당한다. 한편, 「모조 지구 혁명기」에서는 제2 지구인 모조 지구라는 디스토피아가 나타난다. 「모조 지구 혁명기」는 세계의 범위가 외계까지 확장된 미래에, 지구의 테마파크를 모방한 모조 지구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지구인과 천사, 고양이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 속에서 모조 지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공식 명칭은 제2 지구지만, 행성 안팎 사람들 모두 모조 지구라고 불렀다. 모조 지구는 일종의 테마파크다. 지구 출신으로서는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 진짜 지구는 갖가지 종류의 폭력, 혐오, 재난으로 범벅되어 있어 여행자들에게 평판이 나빴다. 여행 안전 지역이 되려면 수천 년은 멀었다고들 말했다. 그래서 미니어처 공원이나 체험형 박물관처럼, 안전한 모사품으로 이곳이 만들어졌다. …… 놀이공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간 조악할 수밖에 없지만, 모조 지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창밖을 내다보면 칙칙한 가건물들과 그로테스크한 인형들이 돌아다니는 풍경뿐이었다.<sup>8)</sup>

모조 지구는 망가진 지구의 부정적인 단면만을 본떠 만든 형태이다. 칙칙한 건물과 그로테스크한 인형들만이 돌아다니는 모조 지구는, 지구가 폐허 상태가 된 것처럼 생기가 없다. 모조 지구가 만들어진 이유는 폭력과 혐오로 인해 지구와 문명이 점차 병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는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힘든 수준이 되었다.

이때 지구를 망가뜨린 폭력과 혐오의 발생은 인간의 파괴 충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타나토스, 즉, 파괴 충동을 지닌 존재이다. 파괴 충동이란 개인 혹은 만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는 이기주의와 갖은 혐오, 갈등을 양산하기에 이른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에로스적으로 화합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화합하지 못하면 문명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다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붕괴된 지구는 인류끼리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 등 인공적인 재난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간의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이 ‘디자이너’를 통해 다시 드러난다. 모조 지구를 만든 ‘디자이너(아트 디렉터)’는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인면어를 만드는 생태 교란을 시도하였고, 뿔 달린 지구의 동물들을 납치해 6살 아이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였다. 디자이너의 모든 행위 역시 인간의 파괴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도한 문명 발전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며 자연과 융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구는 “씨앗을 심을 수 없을”<sup>9)</sup>만큼의 환경적 위기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모조 지구 혁명기」에서 지구는 화합하지 못한 결과로 무너졌으며, 우주에서 환영받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미래를 맞게 되었다. 결국 인류에게는 이미 망가진 지구, 그 지구를 대체하기 위해 생겨난 암울한 모조 지구라는 디스토피아가 건설된다. 「7교시」와 「리셋」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디스토피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7교시」는 22세기 또는 23세기의 학생들이 듣는 현대사 수업을 통해 21세기의 미래 인류가 겪은 디스토피아와 이로 인한 대멸종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전의 사람들도 생명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겨우 고려되기 시작한 단계였지만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을 해치지 말자고, 모피를 입지 말자고, 또 그때까지 식생활의 중심이었던 육식을 줄이자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게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수온 상승과 바닷물 산성화로 온 바다의 산호가 녹아 사라진 것은 205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멸종도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20세기 중반부터 어떤 궤도가 그려질지 알고 있었으면서, 150년 동안 막지 않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38억 년 전 진화의 결과물들이 20세기와 21세기에 지워졌습니다. 인류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098년에, 인류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철새들이 혼란에 빠져 이동 경로가 바뀌었고, 이상 기후로 심각한 홍수를 겪고 난 초가을이었기에 특정 모기들이 훨씬 넓은 영역에서 활동했습니다. …… 2098년에 지독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자, 감염된 사람들의 뇌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 인류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sup>10)</sup>

21세기 인류를 향한 디스토피아는 실로 처참하게 그려진다. 2050년경 산호초의 멸종으로 바닷물의 산소가 줄어들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차츰 사라지면서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멸종되기 시작하였다. 이상 기후가 생기며,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등 인류는 큰 생태 위기를 겪게 되었다. 21세기 끝 무렵에 결국 인류의 3분의 1은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21세기의 디스토피아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작품에 등장하듯이, 인류는 20세기 중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식물을 파괴해 갔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렇게 생태계 파괴로 디스토피아를 맞게 된 원인을, 미래 인류 ‘아라’는 “모든 파국을 불러온 공격성과 이기심”<sup>11)</sup>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프로이트의 파괴 충동에 대한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리셋」에서도 파괴 충동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파국을 맞이한다. 「리셋」은 거대 지령이가 내려와 모든 도시와 문명을 먹어버리는 디스토피아 상황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거대 지령이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건물들을 집어삼키면서 같이 삼켜”<sup>12)</sup>버렸기 때문에 현 인류는 ‘리셋’될 위기에 놓인다. 거대 지령이가 인간을 먹어버린 탓에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었고, 이들은 힘을 합쳐 살아갈 방법을 강구한다. 그런데 이때, 거대 지령이는 외계에서 갑자기 내려온 생명체가 아닌, 주인공인 ‘앤’ 스스로가 타임 슬립(Time Slip)을 통해 보낸 것이었다.

앤, 모른 척해줘요. 지구(Earth)를 위해, 지령이(Earthworm)를 위해.

어째선지 나는 왠지 울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결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다음 불침번을 설 사람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다시는 생산되지 않을 스니커즈 바닥이 닳도록 메시지를 지우고 나자 울음이 그쳤다. 지령이를 보낸 것은 나였다. 미래의 나. 모든 것이 잘못된 후의 내가 세계를 수정하기 위해. 나 혼자만 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설계에 참여한 것만은 분명했다. 어쩐지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다.

지구를 위해, 나는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었다.<sup>13)</sup>

미래의 ‘앤’이 거대 지령이를 보낸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이기심, 문명의 폭력성으

로 뒤덮인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행성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책임한 쓰레기만 끝없이 만들고, 과잉소비에 몸을 맡긴”<sup>14)</sup> 인간, “멸종, 다음 멸종, 다다음 멸종이 되었음에도 눈에 귀여운 종이 완전히 사라지면 ‘아아아’ 탄식한 후 스티커 같은 것이나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 죽는 것에는 개뿔 관심도 없는”<sup>15)</sup> 인간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파괴 충동을 통해 생태계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명이 생태 파괴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 대한 에로스, 즉,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파괴 충동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른 자연과 에로스로 결합하려는 자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기에 미래의 포스트휴먼 ‘앤’은 실제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릴 위기에 놓인 지구를 위해, 변화를 촉구하고자 현 인류를 상대로 인공적 디스토피아를 건설해내기에 이른다.

### 3. 포스트휴먼 시대, 생태 유토피아를 향한 가능성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문명의 폭력적인 특성 때문에(「목소리를 드릴게요」), 인간 고유의 파괴 충동을 에로스로서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모조 지구 혁명기」, 「7교시」, 「리셋」), 미래에는 디스토피아가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가 무너진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제시함으로써 소설은 현 인류에게 반성과 성찰을 제공한다. 변화와 깨달음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이미 정세랑 소설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정세랑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디스토피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디스토피아에서 시작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정세랑은 포스트휴먼 시대 속 생태 유토피아를 향한 가능성을 내보인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계에는 비단 인간과 동·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이라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계에는 인간과 비인간, 즉, 자연뿐만 아니라 AI나 로봇 등도 포함된다. 인간끼리 협력하는 것을 넘어, 비인간에게도 에로스를 베풀어 공생하는 것이 포스트휴먼 시대의 올바른 생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네 작품에서는 인간-인간끼리의 화합, 인간과 인공 생명체의 협력,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형태로 생태공동체에 관한 윤리가 표현된다.

우선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는 인간끼리 협력하는 유토피아를 볼 수 있다. 수용소 안의 ‘승균’, ‘하민’, ‘경모’, ‘수현’은 함께 놀더라도 그 순간일 뿐,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연선’이 등장하며 수용소 안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연선’이 편견 없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수용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에로스가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에로스란 삶 충동이자 일종의 사랑으로, 문명 속에서 사람들을 한 데 묶으려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파괴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였는데,<sup>16)</sup> 이를 가장 잘 수행한 인물이 바로 ‘연선’이었다. ‘연선’이 처음 보는 아이의 머리를 닿아준 것도, 수염을 길러보라고 조언을 해준 것도, 함께 모르는 노래를 따라 부른 것도 모두 사람과 묶으려는, 에로스가 발동하여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파괴 충동과 에로스를 함께 갖지만, 수용소에 갇혀 있는 디스토피아적 상황 속에서 ‘승균’, ‘하민’, ‘경모’, ‘수현’에게는 에로스가 잘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선’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남에게 비교적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연선’의 호의와 함께 에로스가 퍼지며 이들은 점차 하나로 묶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 데 묶여 즐거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은 '연선'의 병세와 함께 끝나고 만다. 남에게 관심이 없던 수용소 안의 인물들은 '연선'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아프지 않기를 빌어준다. '승균'과 '하민', '경모'와 '수현'은 힘을 합쳐 '연선'을 수용소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고, 진정으로 협동하기 시작한다. '연선'이 떠난 후에도 이들은 '연선'의 손길과 조언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연선'을 보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에로스가 발현하자,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는 인간끼리 화합하는 방식의 생태 유토피아가 형성될 수 있었다. 「모조 지구 혁명기」에서는 인간끼리가 아닌, 인간과 AI 로봇의 결합으로 생태 유토피아가 그려진다. 소설에는 모조 지구에 사는 유일한 지구인인 '나'와, 인공 생명체 '천사', '고양이 인간'이 등장한다. 모조 지구에서 생활하는 '천사'와 '고양이 인간'을 설계한 것은 '디자이너'였다. '천사'에게 날개 세 개가 돋는 일이 발생하자 셋은 힘을 합쳐 디자이너를 찾아간다. 알고 보니 디자이너는 지구의 생물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변형시켜 생태계를 망가뜨렸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천사'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고 무책임한 '디자이너'의 태도에 분노한 '나'는 그를 죽이고, '천사', '고양이 인간'과 함께 남게 된다.

지구인 '나'는 비인간인 '천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고양이 인간'과는 우정으로 묶여 또 다른 연(緣)을 형성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나'와 '천사'의 사랑은 성애로, '나'와 '고양이 인간'의 사랑은 정애로 설명이 가능하다. '나'는 사랑하는 '천사'의 곁에 남아 모조 지구를 지키고, 우정으로 연결된 '고양이 인간'이 모조 지구를 떠나서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준다. 또한, 모조 지구에 있는 인공적 존재들을 존중하고 이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나'는 “행성 반대편에 바다를 하나 더 만들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조에 가둬뒀던 인면어들을 그곳에 다시 풀어주고, 인면어들과 아직 완전한 화해는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가능할지도 모른다.”<sup>17)</sup>라고 생각한다. 그다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인면어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기도 한다. 이처럼 정세랑은 '나'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AI 및 로봇'이 결합한 유토피아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정으로 우리 미래에 걸맞은 생태 유토피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7교시」와 「리셋」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해 생태 유토피아를 그려낸다. 「7교시」에서 미래의 신인류는 현대사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으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22세기 혹은 23세기로 추정되는 먼 미래에서 환경주의는 “드디어 비웃음당하지 않는 보편 가치”<sup>18)</sup>가 되었다.

사람들은 깨어나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새나 모기가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고. 그때까지도 성장만을 향해 폭주하는 체제를 끌고 가려고 애쓰던 기업이, 자본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sup>19)</sup>

적정 인구수에 가까워졌을 무렵, 전 세계적으로 도심 압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자급자족적으로 기능하는 도시를 설계하여 인류의 생활공간을 좁혔습니다. 나머지 면적을 자연에 되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식물들이 그 회복 영역을 삼키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숲이 번지는 속도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라진 줄 알았던 종들이 다시 발견되길, 인류의 방해받지 않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 나아가길 지켜볼 날만 남았습니다.<sup>20)</sup>

먼 미래에 다다라서야, 인간은 이기적인 문명과 스스로에게 생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알도 레오폴드에 의하면, 문명은 온갖 도구와 매개자들을 통해 인간-땅 관계를 어지럽게 흠뜨려놓았다. 야생의 자연은 문명이라고 하는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과도하게 이용되어 왔다.<sup>21)</sup> 미래 인류는 이를 깨닫고, 생태를 파괴한 문명과 개인에 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신인류는 지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적정 인구 수를 책정하고 출산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지구를 공생하는 장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와 연결된다. 레오폴드는 인간 개인을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았다. 인류를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키며, 레오폴드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였다.<sup>22)</sup> 이러한 레오폴드의 공동체, 지구, 토지에 관한 존중의 요구는 미래 사회에서 적정 인구 수 제한으로 지켜진다.

미래 인류에게는 레오폴드의 주장이 당연한 보편의 가치가 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기에 인류는 더 나아가, 생태를 보전하고자 자신의 생활 공간을 좁히고, 나머지를 자연에 돌려주고 있기도 하다. 자연과 생활공간을 나눠 가지며 신인류는 다양한 종들과 공생하게 되었다. 「7교시」에서는 땅과 사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sup>23)</sup> 레오폴드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보전’이 이루어지며 비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 유토피아를 구축해 내고 있다.

「리셋」에서는 ‘인간’과 ‘땅에 속한 비인간 물질들’이 공생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생태 유토피아를 완성해 가는 중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거대 지령이의 지구 문명 파괴는 환경을 보존하라는, 미래에서 온 일종의 경고였다. 디스토피아적 상황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환경 오염 물질과 건물, 인류를 한 번에 삼켜버리는 거대 지령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며, 지하에 생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지하도시는 생태계를 파괴했던 이전 인류가 살던 도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형태가 되었다. 리셋 이후로 식물들이 지표를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으며, 인류도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두려움을 원료로 인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지령이들이 다다르지 않았던 땅 깊은 곳에 도시를 지었고, 지열 발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어떤 쓰레기도 도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자원은 도시 안에서 끝없이 순환되었다.

인류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을 다른 종들에게 내어준 건 꽤 괜찮은 분배였던 것 같다. …… 인류는 더 이상 인류를 위해 다른 종을 굴절시키지 않는다. 울타리 밖의 돼지들을 몰래 바라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 종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며 마지막 양식장이 철거되었고, 이제 인류 문명은 물고기 한 마리도 가두고 있지 않았다. 바다를 식량 창고로 여기던 풍습은 사라졌다. 육인 생명도 갇힌 생명도 없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sup>24)</sup>

이전까지의 토지는 질병 상태였다. 레오폴드에 의하면, 토지 질병이란, 뚜렷한 이유 없이 어떤 동식물 종이 사라지는 현상,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식물 종이 새로운 수준까지 대량 번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sup>25)</sup> 거대 지령이의 등장으로 ‘리셋’이 되기 이전에는 토지를 인류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토지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인류는 리셋 이후 이를 바로 잡고자, 지상의 토지를 자연에 내어주고, 지하에서 친환경 발전을 하며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류를 위해 다른 종을 굴절시킬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인간 자연과의 진정한 공존을 이뤄내며

생태 유토피아를 구축해 가고 있다.

#### 4. 결론

지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는 어느새 현실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인류는 생태계 파괴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이제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봐”<sup>26)</sup>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문단의 관심도 생태주의 작품들로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F에 생태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방식의 ‘포스트휴먼 생태주의’ 작품이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아직 활발히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정세량의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 속 포스트휴먼 생태주의적 요소를 분석해 보았다.

주제에 적합한 「목소리를 드릴게요」, 「모조 지구 혁명기」, 「리셋」, 「7교시」의 총 네 작품을 선정하여,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생태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은 프로이트의 파괴 충동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정세량 소설에서는 21세기 현 인류의 이기심과 문명의 파괴적 특성으로 인해 디스토피아가 건설되고 말았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문명의 폭력적인 특성 때문에(「목소리를 드릴게요」), 인간 고유의 파괴 충동을 에로스로써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모조 지구 혁명기」, 「7교시」, 「리셋」), 미래에는 디스토피아가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제시함으로써 소설은 현 인류에게 반성과 성찰을 제공하였다, 변화와 깨달음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이미 정세량 소설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정세량은 여기서 더 나아가 디스토피아에서 시작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포스트휴먼 시대 속 생태 유토피아를 향한 가능성을 내보였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계에는 인간과 비인간, 즉, 자연뿐만 아니라 AI나 로봇 등도 포함된다. 네 작품에서는 인간-인간끼리의 화합(「목소리를 드릴게요」), 인간과 인공 생명체의 협력(「모조 지구 혁명기」), 인간과 자연의 공생(「7교시」, 「리셋」)이라는 형태로 생태공동체에 관한 윤리가 표현되었다. 특히, 인간 및 AI 로봇이 협력하고 화합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에로스’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은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와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정세량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 및 모든 종류의 비인간이 결합하는 방식의 ‘생태 유토피아’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현 인류에 관한 반성과 성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세량은 다른 SF 작가들과는 구별되게,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생태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정세량의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 속 포스트휴먼 생태주의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SF 생태주의로서 정세량의 의의를 밝혀주었다. 그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 1) 신두호,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인문과학』 제60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p. 72.
  - 2) 오윤주, 「생태 위기 시대 문학의 향방 및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3권 1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p. 473.
  - 3) 김분선,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 지위에 대한 고찰」, 『환경철학』 제23권, 한국환경철학회, 2017, p. 38.
  - 4) 김윤정, 「한국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재야생화(rewilding)와 생태주의」, 『우리文學研究』 제79집, 우리문학회, 2023, p. 203.
  - 5) 오윤주, 「디스토피아 소설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p. 237.
  - 6) 박경서, 「전복적 상상력: 아나키즘적 유토피아에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로」, 『영미어문학』 제104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12, p. 54.
  - 7) S. Freud,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p. 281.
  - 8)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pp. 96-97.
  - 9) 위의 책, p. 108
  - 10) 위의 책, pp. 220-223.
  - 11) 위의 책, p. 226.
  - 12) 위의 책, p. 46.
  - 13) 위의 책, pp. 74-75.
  - 14) 위의 책, p. 44.
  - 15) 위의 책, p. 45.
  - 16) S. Freud, 앞의 책, p. 289.
  - 17) 정세랑, 앞의 책, pp. 111-112.
  - 18) 위의 책, p. 223.
  - 19) 위의 책, p. 223.
  - 20) 위의 책, p. 226.
  - 21) A. Leopold, 송명규 옮김, 『모래 군(郡)의 열두 달』, 따님, 2017, pp. 220-230.
  - 22) 위의 책, pp. 246-247.
  - 23) 위의 책, p. 250.
  - 24) 정세랑, 앞의 책, pp. 79-91.
  - 25) A. Leopold, 앞의 책, p. 236.
  - 26) 정세랑, 앞의 책, p.264.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A. Leopold, 송명규 옮김, 『모래 군(郡)의 열두 달』, 따님, 2017.

S. Freud,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 <논저>

김분선,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 지위에 대한 고찰」, 『환경철학』 제23권, 한국환경철학회, 2017, pp. 37-61.

김윤정, 「한국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재야생화(rewilding)와 생태주의」, 『우리文學研究』 제79집, 우리문학회, 2023, pp. 203-234.

박경서, 「전복적 상상력: 아나키즘적 유토피아에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로」, 『영미어문학』 제104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12, pp. 53-76.

신두호,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인문과학』 제60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pp. 67-102.

오윤주, 「디스토피아 소설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pp. 237-253.

\_\_\_\_\_, 「생태 위기 시대 문학의 향방 및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3권 1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pp. 473-486.